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 알고 있습니까?

학교 성교육 이대로 괜찮나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의 삽화는 적나라하다. 남성과 여성의 별거벗은 모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성교 모습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다. 아기가 나오는 장면도 가감 없이 묘사한다. 덴마크 작가 페르 홀름 크누센이 쓴 아동용 도서다. 이 도서는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했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을 꼽아 일부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정책이다.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포르노 같은 동화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외에도 동성애, 페미니즘을 다룬 책들을 문제 삼았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무엇일가에 대한 고민에 국제 사회에서는 답을 내놓았다. 유네스코에서는 성교육 가이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이 담겨있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 등 넓은 의미의 성(섹슈얼리티)을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성별과 함께 성욕, 성의식, 성 정체성 등 넓은 의미의 ‘성’을 아우른다.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지 않는다. 생물학적 특징만 다루게 되면 젠더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의 개념으로 통과되는 57개가 넘

는 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바로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젠더교육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적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 보건 교과서에도 유네스코가 주장하는 ‘포괄적 성교육’ 지침이 반영되어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포괄적 성교육은 5~8세 유아에게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교육하고 9~12세 초등학생에게는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며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한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콘돔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중학생들에게 콘돔과 피임약의 지속적 사용을 교육하며 낙태약인 응급피임약까지 교육한다”며 “항문성교, 구강성교가 정상이라고 교육하며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 탐구하도록 가르치는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친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2023년까지 시행되는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대해 비판하였다. 동성애나 적나라한 성 정보가 담긴 책을 초중고 학생들의 보건 교과서로

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5·6학년 보건 교과서 내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발기’라며 포르노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실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조기에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며 아빠란 존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감이 승인한 보건 교과서가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성과 건강’ 항목은 학생들에게 자위, 피임만 하면 학생에게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가르쳐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을 훈련하는 교육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반대에 맞섰다. 울산교총은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 중 장학금 많이 주는 대학은?

대학	대학순위	평균재정보조액수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수	연간등록금	비고
컬럼비아대학교	유에스 뉴스 2위	\$60,608	2,973	\$63,530	부부 합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부모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보조
예일대학교	유에스 뉴스 4위	\$61,407	2,732	\$59, 950	예일대 학생의 가족 수입이 연간 65,000달러 이하이고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면 비용 전액 대학이 지원
윌리엄스대학	유에스 뉴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1위	\$51,972	1,032	\$59,660	매년 5천만 달러 이상의 기관 지원을 학생들에게 수여
에머스트대학	유에스 뉴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2위	\$59,861	1,067	\$61,335	매년 5천만 달러의 재정보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덜 의존하면서 대학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함.
하버드대학교	유에스 뉴스 2위	\$62,338	3,745	\$55,587	연 소득이 65,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에 필요한 돈 지불하지 않음. 약 20%의 학생들이 전액 보조.
버사대학	유에스 뉴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22위	\$55,995	1,355	\$62,870	전폭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명시적인 목표
듀크대학교	유에스 뉴스 9위	\$59,056	2,788	\$60,489	가구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전액을 지원
사카고대학교	유에스 뉴스 랭킹 6위	\$60,875	2,717	\$60,963	컬럼비아대학교와 함께 가장 학비가 비싼 대학 가운데 하나. 학자금 보조, 성적 우수 장학금, 교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요구를 충족
콜гей트대학	유에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랭킹 17위	\$62,415	975	\$61,966	Need based Grant(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는 보조금)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평균 지원금 중 2,500달러만 대출금 형태로 지급된다. 4만6775달러(약 4만6775달러)의 지원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주는 그란트로 지급.

왜 지금이 이처럼 중요한 순간인가

바야흐로 전 세계는 코로나 열병에서 서서히 출구터 널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중한디?”라는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물론 각자 결론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그 결론이 옳든 그르든 시대의 산물로 교훈을 각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질문하나 과연 내 이 전염병이 왜 왔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코로나 기간 각국은 묵인 경제를 해결해보고자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나라는 수백 %의 물가 상승으로, 어느 나라는 국가 부도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리인상, 중국 위안화의 흔들림 속에서 양쪽 파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대국 러시아’를 바닥까지 몰고 왔습니다. 천연가스로 유럽을 조종하는 러시아는 가스 밸브로 마지막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유럽은 에너지 대란의 추운 겨울의 공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일 듯 말듯 전쟁의 끝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위기 속에 기회의 줄이 계속 그 나라에 내려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무엇보다 K방산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국방기술제품은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2 한국 DX는 전 세계 국방장관, 총장 등 군 수뇌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k2전차, k9자주포, k3소통, 호주를 위해 만든 첨단 ‘레드백’ 장갑차, 한국형 공격드론, FA50전투비행기, SLBM을 장착한 재래식 잠수함, 천궁, 천무시리즈로 일컫는 미사일 등은 가성비 뿐만 아니라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도 최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끝판왕 K21전투기의 발전 향방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AESA레이더, 레이저무기, 특수스텔스재료개발, 각종 감시체계, 위성발사로 인한 한국형 아이언 돔 등등.

냉전이 끝나고 무기 기술 대국 독일은 전차생산시설조차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의 무기생산지원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 외에 가능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 한국 외엔 별로 대안이 없습니다. 6.25로 패망 일본이 일어났듯이

한국은 오히려 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서방의 유일한 무기공급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인도, 슬로바키아, 체코,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 방산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국방산수출은 세계 5위를 넘어 4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내년도에서 대안 없는 공급국으로 그 위상이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난공사, 즉 불가능한 건설을 한국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냅니다. 원전설계는 좀더 발전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은 흑한, 흑서환경에서 질 좋은 합리적 가격으로 한국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고속철을 맡겼다가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에 K2전차와, 철도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래플즈빌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쌍둥이 빌딩, 대만의 초고층 빌딩, 중동의 버즈 칼리파 세계 최고층빌딩 세계의 랜드마크의 공사는 한국이 담당해왔고 또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600조 이상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협력이 없다면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중동의 담수화프로젝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농업생산성 향상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K한류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청정에너지 원자력 소형화에 한국이 선도국이 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판을 깔았지만, 배터리와 기술력에서 한국에게도 급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으로 LNG운반선 생산 세계 1위, 쇄빙선 생산기술은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으로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제외한 메모리 분야는 계속 달리고 있고, 파운드리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컬처, 영화, 드라마는 그 시나리오와 연기적 완성도에서 이미 국제적인 상을 아시아 최초로 서방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 백제의 한때, 고려의 한때, 조선의 세종대에서 선진 조선 이후 우리가 이토록 세계의 손길에 응답할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성감옥에서 죽어야 할 이승만이 성령 체험한 후에 조선에 대한 책략, 비전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일본의 일인당 GDP도 추월할 예정입니다. G5를 넘어 누가 G2국가 된다고 예언했습니까?

코리아 질주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막히게 위기마다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에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것으로 이미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과 제품으로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러시아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시너지 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기적처럼 시작하게 해주신 그분의 배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사회와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청결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는 동성애로 대변되는 하나님으로 독립하여 인간주의를 내세우려는 가공할 파괴 공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교과서 개정을 통해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를 지우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마치 권장하듯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모호한 이름 아래 스스로 마음껏 맘이 맞으면 동성애도 가능한 것이 인권이라고 미혹합니다. 가정과 사회, 정치권 인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열방의 허브 대한민국의 기회의 줄을 잡을 것인가.

바로 축복의 핵이 되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이 땅에 진정한 ‘팍스 코리아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파도 속에 엄청난 스릴의 윈드서핑을 하는 국가가 있고, 파선되어 침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더는 이 역사 속에 존재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세계 패권의 야욕에 불타는 중국이 아직도 명나라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산다면 우리는 지렛대 같은 나라가 되어 중국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눠주는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참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보이지 않는 손 그분께로!

11월 13일은 바로 당신을 월드와이드가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선진국 백제의 문물 전수로 개화된 일본

일본이 4세기 후반 백제, 신라, 가야를 일본이 지배했고 특히나 가야에 일본 본부를 뒀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에 싣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역사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토침략으로 비화할 요소가 내포될 수 있다. 일본을 지배하고 문화와 기술 등 일본에 많은 제도와 문물, 산성의 축조까지도 전수한 백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왜에 문물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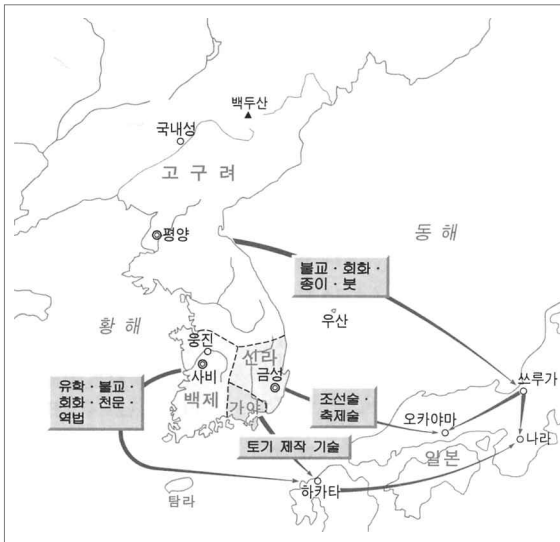
삼국시대의 왜는 독자적인 문화를 갖지 못하고 우리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왜[倭]란 일본의 초기 국명이자 그들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으로, 보통 왜라고 불리는 국가는 일본 최초의 국가인 야마타이국이었다. 이 야마타이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 여러 부족의 연맹 정도의 국가였다. 일본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3세기 즈음에 가서야 생겨난 야마토 정권이다. 제대로 된 제도와 중앙집권을 갖추지 못한 왜는 삼국시대 세 나라, 아니 가야까지 합쳐서 네 나라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

고구려의 답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왜에 가서 유학과 불교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림에 색감을 넣는 법, 먹과 종이의 제작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신라와 왜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왜에 배 만드는 기술과 저수지 쌓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

백제와 일본은 신라, 고구려보다 물리적으로 가깝고 그로 인해 문화적 교류가 잦았다. 고대의 백제는 중국의 남조로부터 묘제·건축·회화·조각·학문 등 고도의 문화를 흡수하여 독자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한성시대 초부터 웅진·사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한학·불교·천문·지리·의학·음악·음양·공예와 여러 가지 산업기술이 고대 일본 문화에 씨를 뿌렸으며 점차 꽃을 피우게 되었다. 백제가 언제부터 왜와 외교 관계를 맺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대로, 국교 수립 후 양국은 꾸준히 사신을 교환하며 문화를 교류하였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백제의 문화가 남아 있다. 백제가 일본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발달된 선진 문화와 학문의 전파 때문이다. 학문과 기술을 전하며 일본인의 스승으로 남은 백제인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왕인 박사를 비롯해 궁월군, 아직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야마토 최초의 ‘한류’는 왕인 박사와 아직기에 의해 전래된 한국의 선진 문물 일 것이다.

아직기는 백제 근초고왕 때 일본에 건너간 학자로서 근초고왕의 지시로 말 2필을 일본 왕에게 진상한 후 말을 기르던 일을 맡아 보던 중 그가 경서에 능통한 것을 안 일본 천왕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며, 17대 아신왕은 왜와 수교를 맺고 태자 전지를 일본으로 보냈다. 오



진 천황은 백제의 태자 전지를 7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훌륭한 학자를 청하였는데, 이에 왕인은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도공, 야공, 와공 등과 함께 도일하였다. 왕인은 일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학문과 인륜의 기초를 세웠으며, 일본가요를 창시하고 기술 및 공예를 전수하여 아스카 문화와 나라문화의 바탕을 세웠다. 그 외에도 궁월군은 백제 아신왕 14년(403년)에 인부 120명을 이끌고 귀화해 각종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으며, 백제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다섯 가지 유교 경전에 능통한 5경 박사와 의학, 천문, 지리 등 각종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일본으로 보내 학문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아스카, 나라시대 일본의 사원은 백제인 등 한반도 이주민들의 기술로 건립되었으며, 불상도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직접 들여왔고 삼국계 이주 호족들과의 밀접한 연관 하에 제작되었다.

신도(神道)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정신과 내세관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가 백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현대 일본인들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문헌상으로 확인된 일본으로의 불교 전파 시기는 서기 538년이지만,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된 것이 4세기 후반임을 고려하면 더 일찍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다. 552년 백제 성왕이 귀족이자 승려였던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 한 개와 경전 몇 권을 전하였다.

이 시대의 문화인 아스카문화는 백제 문명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제도, 문물이 수입되었는데, 유·불교를 비롯하여 건축, 조각, 회화 등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학자, 승려, 백제유민 등에 의해 전수되었다.

일본에 남은 백제의 발자취

매년 11월,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고대 한반도의 문

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지역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의 이름은 ‘시텐노사(왔소 축제)’이다. 이 행사는 고대 일본의 국제 교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왔소’는 축제를 할 때 가마를 메고 ‘왔쇼이’라고 외치는 힘찬 구령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의 어원은 한국어의 ‘왔소’이다.

지금도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가면 ‘백제천(百濟川)’, ‘백제촌(百濟村)’, ‘백제역(百濟驛)’ 등 백제 사람들이 남긴 역사적 흔적과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고대 일본은 백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대국가 수립과 고대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토대가 되었다. 백제가 일본열도에 마한계 토기류를 비롯하여 백제계 기와와 전돌, 부뚜막시설, 대벽건물, 장식대도,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 등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이나 장례용 의례품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물을 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와 그 주변 지역에는 백제 도왜인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와치와 그 주변의 이즈미, 야마토 등지에는 수에무라 유적,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오가타 유적, 와키다 유적, 시토미야기타 유적, 이치스카 유적, 난고 유적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 가운데 오사카 남동부의 하비키노시에 곤지를 모신 아스카베 신사가 있으며, 그 주변의 구릉에는 아스카베센즈카라는 백 여기의 고분군이 존재한다. 곤지는 백제의 개로왕과 문주왕의 동생으로 가와치 지역에 16년 동안 머무르면서 백제 도왜인들을 조직화하여 왜 정권이 천백제 노선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 왕족이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백제와 가야는 왜에 여러 기술과 학문을 전수해 주어 왜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왜는 백제가 전쟁을 할 때 용병을 보내 도왔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사학자들이 이런 삼국시대의 상황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설이 있으니, 바로 임나일본부설이다. 임나일본부설이란 일본이 삼국시대에 가야, 백제,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다스렸다는 설이다.

임나일본부의 ‘임나’는 가야를 다르게 말하는 명칭이다. 이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 학계에서 꾸준히 우려 먹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일본 학계에서도 이 임나일본부설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설이 버젓이 쓰여 있고, 일본 우익들이 계속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음모론을 왜 믿을까?

코로나19와 관련된 황당무계한 음모론적 주장은 ‘일부’를 넘어, 전 지구적 범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과학 지식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대중적 불안감은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빌 게이츠와 코로나 음모론

2015년 빌 게이츠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ED 강연에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천만 명 이상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선견지명은 몇몇 언론에 소개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많은 이들이 그의 연설보다 그 뒤에 숨겨진 근거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해당 영상은 6400만 번 이상 시청됐다.

일부는 그가 세계 엘리트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세계 인구를 줄이는데 앞장섰다고 믿는다. 그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칩을 심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부인 멜린다와 함께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세계 보건위생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사람이 어떻게 코로나19 음모 이론의 주인공이 됐을까? 마이애미대학의 정치 과학자이자 음모 이론 관련 책의 저자 조셉 우신스키 박사에 따르면, 이는 빌 게이츠가 유명한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음모 이론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못된 짓을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이름만 바뀐 음모 이론의 내용은 대개 비슷하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전에는 조지 소로스, 코크 형제, 로스 차일드 가, 록펠러 가가 음모 이론의 대상이 됐다. 음모론의 시초를 쫓아보면 인류의 초기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그 역사가 깊다. 대재앙이 일어나면 평소 손가락질 받던 소수가 그 배후로 지목되는 음모론이 횡행하곤 했다. 특히 흑사병 같은 치명적인 역병은 음모론이 싹트기에는 최적의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 시대인 현대의 음모론에는 역사 속의 음모론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모론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파된다는 점이다. SNS는 구조적으로 공유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진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루머와 거짓말, 음모론을 확산하기에 SNS 만큼 적합한 공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IT 기기나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인포데믹스’라고 한다. 인포데믹스는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서, 정보전염병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번지는 인포데믹스는 공중보건에 큰 해

악이 된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거나 표백제가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가짜 정보들이 나돌기 때문이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컴퓨터과학과 캐서린 칼린 교수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의 약 45%가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로봇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로봇을 이용해 올려진 트윗들에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않기 위해 마네킨으로 병상을 채워놓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5세대 이동통신(5G)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5G 통신탑이 감염 확산을 촉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가짜 뉴스도 이를 통해 확산됐다.

정부나 과학자의 말보다는 SNS를 통해 퍼지는 음모론자들의 가짜뉴스를 믿는 이유는 브리스톨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스테판 트란도우스키는 “사람들이 통제력을 부정하는 무서운 사건(전염병의 대유행, 대규모 총격 사건 등)은 음모 이론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무작위성에 노출돼 있지 않다는 심리적인 위안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야 하는 되는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는 K 건설

국내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해외사업 발굴 노력에 힘입어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이 9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재진입했다. 이는 1965년도 태국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한국 건설이 해외로 최초 진출한 이래 57년 만이다. 한국의 순위는 9위(2009년)→7위(2010~2011)→6위(2012~2013)→5위(2014~2016)→6위(2017~2019)→5위(2020)를 오르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가 1526억7900만 달러로 1위, 아랍에미레이트(UAE)가 829억7900만 달러로 2위, 쿠웨이트가 488억400만 달러로 3위다. 싱가포르(462억5900만 달러), 베트남(453억6200만 달러), 이라크(412억4100만 달러), 리비아(367억8700만 달러), 카타르(269억5300만 달러), 인도네시아(242만87000억 달러), 말레이시아(229억79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K건설은 한국의 수출 주력상품으로도 자리 잡았다.

터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 ‘차나칼레대교’가 개통되었다. ‘하늘과 바다 사이의 평행선’, ‘철로 만든 하프’라고 불리는 현수교는 현존하는 교량 중 가장 긴 경간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상 특수교량 분야 가운데 시공 및 설계 기술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건설 회사의 기술력과 국산 자재로 완성된 현수교로 종전

의 기록을 갈아치운 세계 최장의 현수교이다. 2018년 4월 착공해 총 48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

페루 페루 남동부 쿠스코주에 위치한 친체로 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였다. 친체로신공항은 4km 활주로 1개, 탑승교 13개를 갖춘 터미널(4만6900㎡), 항공기 13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9만㎡) 규모로 건설된다. 연간 수용 인원이 450만 명에 달하는 남미의 매머드급 공항이 우리 건설 기술력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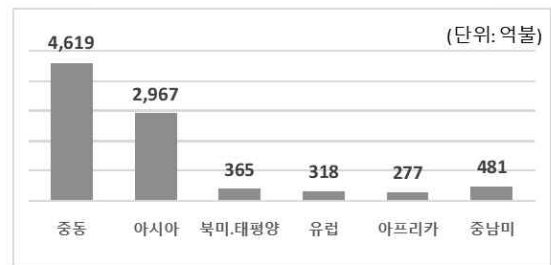
싱가포르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TEL(툰스이스트 코스트라인) 지하철은 창이국제공항에서부터 도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이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통과해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안가 백사장을 매립해 지반이 약하다. 쌍용건설은 현장 맞춤형 공법을 적용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공사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현재 공정률은 88%를 넘어섰고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라크 이라크는 53조 원을 투입해 2041년까지 남부 바스라주 알포지역에 위치한 알포항을 세계 12대 허브항만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해외 건설시장 국가별 매출 순위(ENR기준)

구분 (20년 기준)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한국	미국	이탈리아	터키	일본	네덜란드
매출액(억불)	1,075	626	460	333	214	204	202	183	163	80
점유율(%)	25.6	14.9	10.9	7.9	5.1	4.9	4.8	4.4	3.9	1.9
기업수(개)	78	10	3	5	11	41	12	40	11	3

해외 건설 지역별 수주 누적 현황



자료: 해외건설협회

‘기술력’을 꼽았다. 프로젝트 첫 사업인 알 포 방파제는 현존 세계 최장방파제로 어려운 시공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시공 노하우가 접목됐다. 자동센서로 구성된 머신 컨트롤러를 통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수중 시공 부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시공 정밀도를 높이고, 잠수부 투입을 최소화해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기술도 적용됐다. 이런 성과로 알 포 방파제는 2021년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청정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를 끈 데 이어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구속되면서 구글에서 '마약' 관련 검색량이 폭증하였다.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약 투약·유통·공급 혐의로 붙잡힌다. 온라인에서 마약이 종류별로 팔리고 있다.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실태를 살펴본다.

'마약 청정국' 더이상 아니다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선인 1만 명(10만 명당 25.2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 6,153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검찰이 국내에서 압수한 마약량은 1295.7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에 압수한 320.9kg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kg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2339명으로 전년도(1958명)보다 19.5%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하고,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19세 이하 미성년 마약사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19세 이하 사범은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했으며,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나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어둠의 공간 '다크웹' 속의 은밀한 거래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유는 '유통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마약유통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신원 노출을 꺼린다. 이런 이유로 과거의 마약 거래는 은밀히 이루어졌다. 마약상이나 유통 조직원 등의 경로를 아는 사람만 마약을 실거래로 구매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는 항공, 선박을 통한 밀반입이나 신체 일부에 마약을 직접 숨겨오는 방식이 성행했다.

기술발전은 마약 거래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마약은 이제 경로를 아는 사람만 은밀히 살 수 있는 직거래 방식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일뿐더러 손꼽히는 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마약유통이 활개 치기 좋은 환경이다. 신분 노출의 위험이 적은 SNS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마약 거래 창구가 되었고, 이제 아는 사람 소위 말해 '끼니풀' 없이도 돈과 마약을 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대금 방식도 가상 화폐를 이용하는 추세로, 얼굴이나 목소리, 성별을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5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

마약류 사범 연령별 검거 현황(단위:명)							
구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7년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8년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9년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0년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1년	10,626	309	3,507	2,437	1,781	1,235	1,229

으며,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 역시 5년 전에 대비 9.1배나 늘었다. '다크웹'은 마약류나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인터넷 뒤의 또 다른 어둠의 공간'으로 불린다. 경찰청은 다크웹을 '사람들이 가상화폐와 결합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늘고 있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심각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 청소년을 비롯한 10·20대 젊은 층의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마약류 의약품을 자주 복용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실제 마약 중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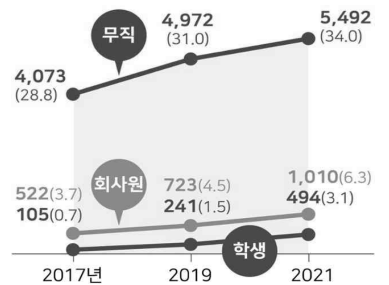
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중독성이 강한데, 이용이 간편하다 보니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다. 인터넷에 우열증과 두통에 좋다고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도 중독 사례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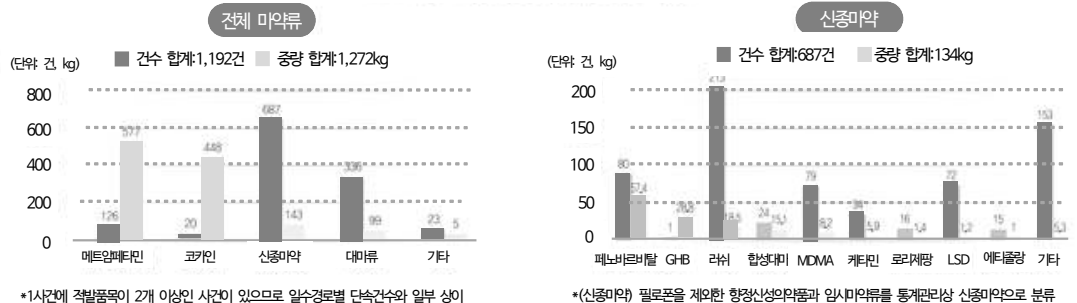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란 누구나 자신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프로포폴이나 졸비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잘못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할 때에는 환각, 초조, 악몽, 우울,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두통, 경련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존도가 높아져 중독될 수 있다.

마약류 사범 직업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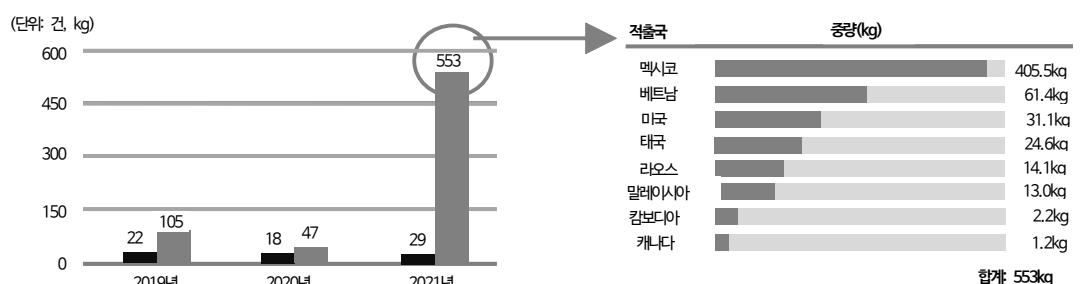
(단위:명, 괄호안은 비중 %)



2021년 품목별 단속현황(전체 마약류)



'kg단위'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전기차 시대의 쌀, 리튬을 잡아라

충전식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찾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최종 제품의 전기차가 지니는 탄소발자국을 평가하며 각각의 소요 부품이 얼마나 탄소를 덜 배출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리튬 골드 러시는 산업적 규모의 환경 피해를 위협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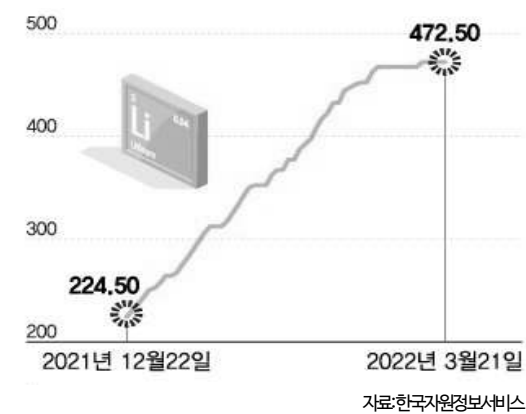
리튬은 전기자동차(EV)에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를 저장하는 2차 전지 제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말 형태의 백색 금속이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전략 자원으로 부상했다.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세르비아가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 강력한 전략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지난 6월 8일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슬로바키아인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부집행 위원장은, 2025년까지 EU를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배터리 생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리튬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유럽은, 리튬의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리오 틴토의 세르비아 투자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42%)과 호주(16%), 미국(18%)이 지분을 보유한 리오 틴토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2001년 첫 번째 지사를 등록한 이후 발칸 반도에서 활동 중이다. 2017년 리오 틴토는 아다르 프로젝트 실행 협정서를 세르비아 정부와 체결했다.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는 약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560억 원)를 투자해 아다르 리튬 광산을 개장하고자 했다. 아다르 광산에서는 배터리 제조를 위한 리튬,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이 매장되어 있으며, 리오 틴토는 향후 최소 15년간 아다르 광산에서 채굴할 예정이었다.

아다르를 채굴하기로 예정된 아다르강 인접지역에는 주민 4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세르비아의 이 지역은 동식물이 다양한 곳으로 140종이 세르비아와 유럽 법률로 보호되고 있고 50여 곳이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지대로 분류되어 있다. 리오 틴토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이자 학자인 블라디미르 스테바노비치는 “원시림 45헥타르 이상은 물론, 자연림 37헥타르와 초원 3헥타르, 농지 703헥타르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르비아 정부는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국회는 아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광산 개발을 발표하고 국유화법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광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으나, 세르비아 국민의 큰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률 개정을 철회했다.

세르비아 국민은 정부와 리오 틴토의 광산 개발에 맞서 전국에서 시위를 개최했다. 2021년 11월 마지막 주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어진 반정부 시위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와 노비 사드를 비롯해 5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리오 틴토의 광산 개발권을 취소한 후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서 벌어진 환경 운동 시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르나비치 총리는 독일, 영국, 미국이 세르비아 국민을 움직였으며, 이 세 나라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리튬 가격 추이(단위:만/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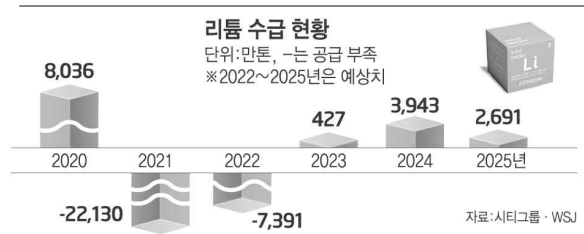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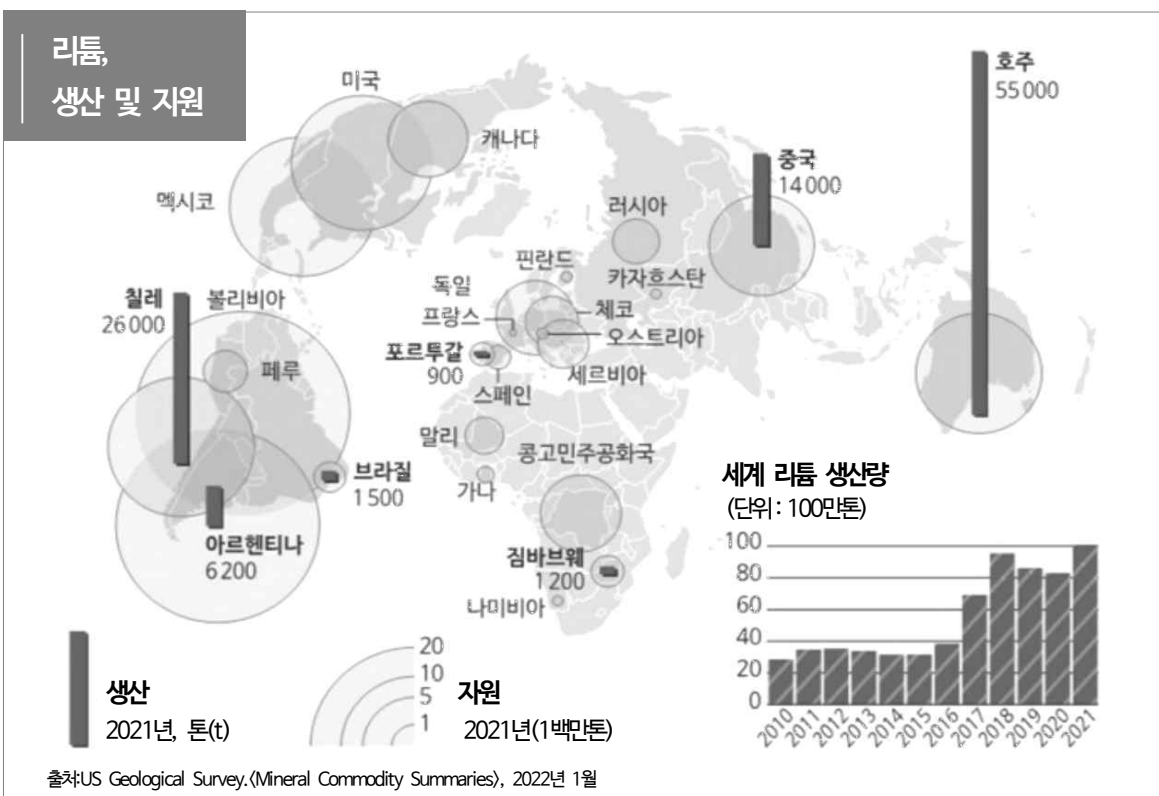
하얀 석유 ‘리튬’의 딜레마

전기자동차 전환을 앞당기려면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리튬’ 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무분별한 채굴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낳는다는 점에서 리튬 채굴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리튬은 노트북PC나 스마트폰 등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기 때문에 ‘하얀 석유’라고도 불린다. 지난 2020년 리튬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35만 톤, 오는 2030년까지 수요가 최대 6배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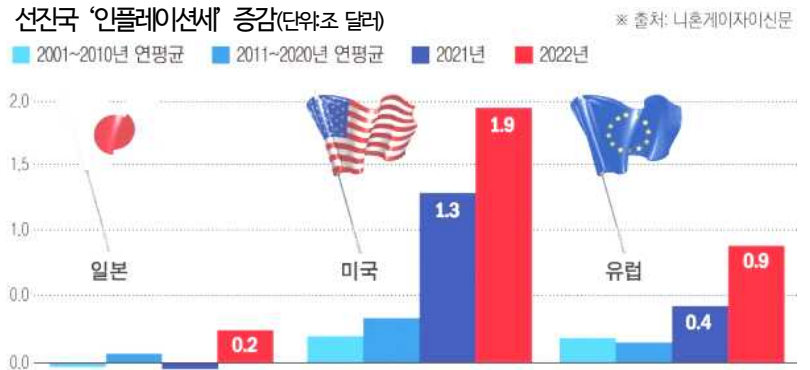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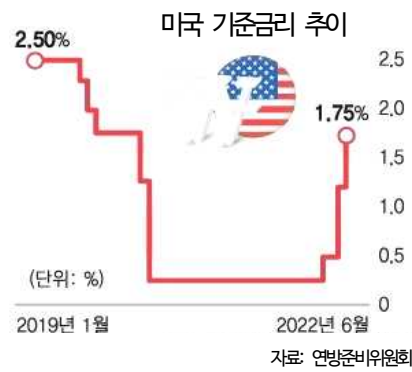
문제는 리튬이 중요해지는 만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리튬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첨가하는 점토와 황산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전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걸쳐 있는 아타카마고원에서 채굴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리튬 생산 증가로 원주민들은 식수난과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막대한 이익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아타카마 소금호수(염호)는 염분이 바닷물(3%)보다 10배가량 높다. 에스큐엘과 알베탈은 소금호수에서 소금물을 뽑아 18~24개월 동안 태양광에 수분을 증발시킨 뒤 나온 추출물에서 리튬을 생산한다. 리튬 1kg을 생산하는 데 평균 2200ℓ의 소금물이 필요하다. 해마다 소금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주변 농지나 습지가 건조화돼 농사는 물론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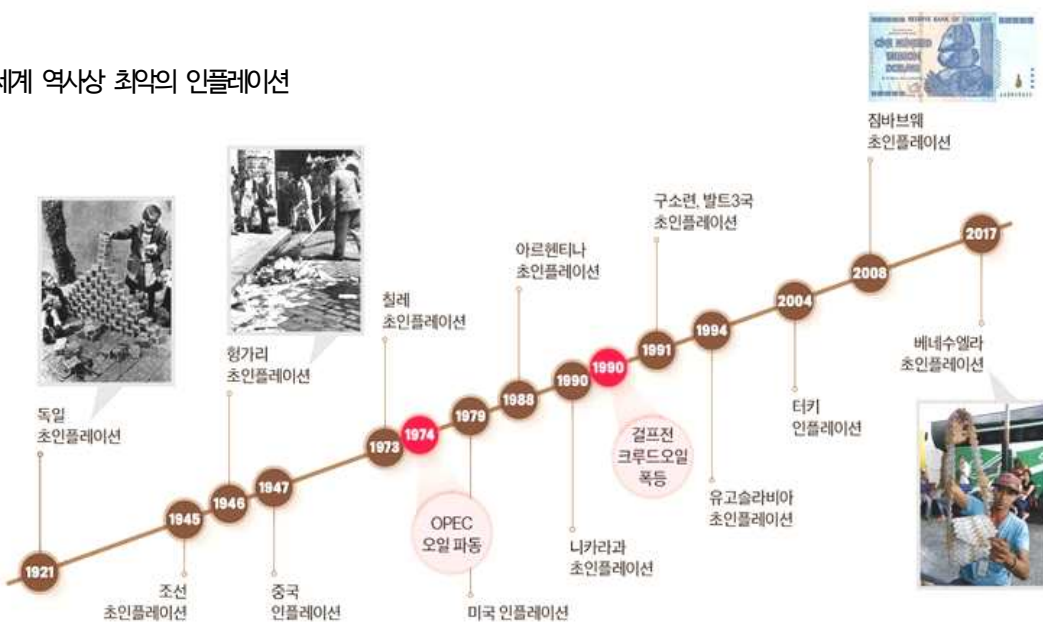


세계는 인플레이션 몸살을 앓는 중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혼란,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 등 원인은 복합적이다. 특히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문제로 날이 추워지는 가을철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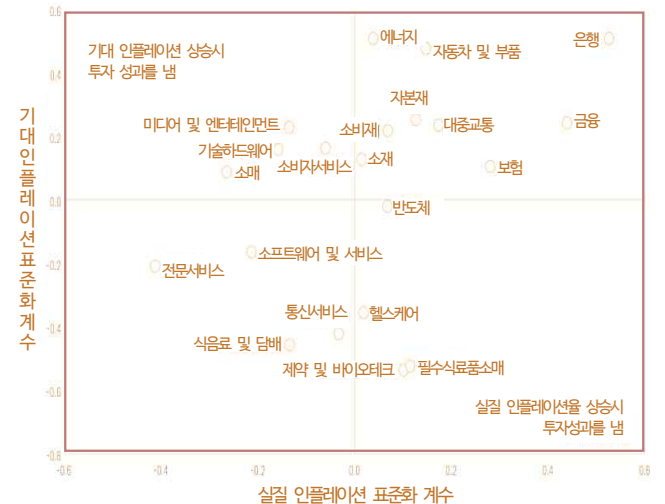


세계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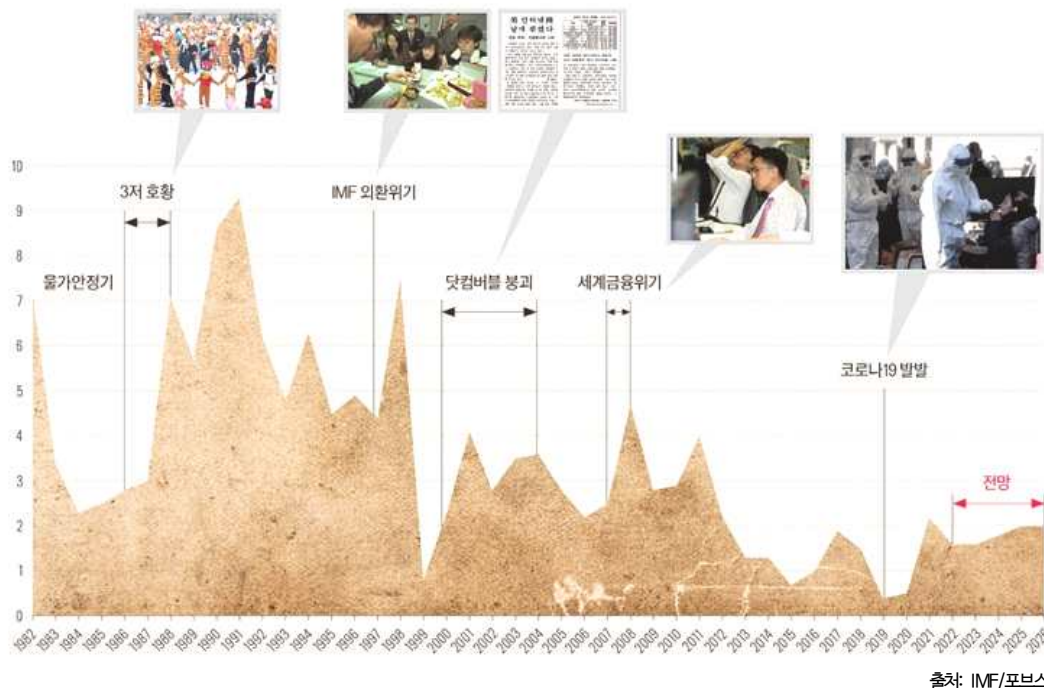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에 대한 산업별 민감도

-지난 5년간 월간 수익률에 대한 27기 요인 회귀분석



출처: 연방준비위원회, 골드만삭스 글로벌마켓스트리트 리서치(2021년2월)/포브스
표준화계수는 다른 측정 단위에도 모든 변수가 동일한 표준편차를 갖도록 조정해 각 변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

국내 인플레이션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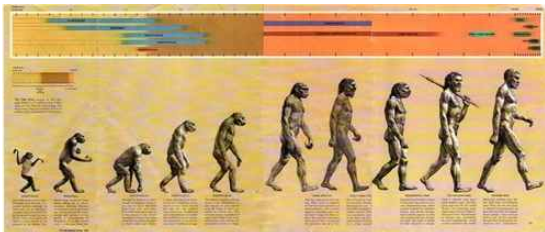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추이



인간의 진화 이야기는 실패이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인류의 행진”, “인간 진화의 퍼레이드” 또는 간단히 “발전”이라 불리는, 일련의 그림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림들은 어떤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으로, 그리고 현생인류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그림은 수많은 글과 책에서, 심지어 우표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상징물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 진화의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다.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원숭이 처럼 보이는 생물에서 시작하여, 드리오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마지막으로 현대인인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 오늘날에 가려진 오랜 시간에 따른 인류 진화도

최초 그림은 초기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인기 있었던 ‘Time-Life’ 책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National Geographic 지에 소개되었다. 대중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지만, 고인류 학자들은 오래전에 이 그림을 버렸다. 그들은 매우 부정확한 인간 진화도를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대체해보려고 애써왔지만,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있다. 발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주장했던 진화론적 조상들이 계속 기각되면서, 인류의 진화도는 이전 그림에 대한 땀집에 불과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수십 년 동안 자바인, 필트다운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에 대한 인간 진화 그림을 전시했었다. 오늘날 자바인과 필트다운인은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고,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생인류의 다른 그룹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진화의 상징물은 오늘날 당혹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론들이 개발되었다.



▲ 기독교 만화가인 잭 칙은 인류진화도의 결점을 코믹하게 지적

현재의 이론

인간 진화론의 현재의 두 지배적 이론은 발전 이론을 거부한다. 발전 이론을 대체한 이론은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이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현생인류의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도 불리는데, 현재까지 인류의 지리적 기원과 초기 이동에 관한 지배적 모델이다. 이 새로운 모델은 호모 사피엔스의 단일 기원을 제안하며,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현대적 특성이 여러 곳에서 각각 진화했다는 수렴(평행)진화를 배제하고 있다.

다른 이론인 다지역 기원설은 호모 에렉투스가 대륙 개체군들 사이에 지속적인 유전자 흐름을 가진 채로,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진화했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기원설과의 한 타협된 버전은 대부분의 인간 개체군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지만, 인간 유전자 풀에 대한 약간의 지역적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화석 발굴이나 실험실 작업도 호모 사피엔스 진화의 초기 부분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라 교수는 “두 모델의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은 격렬하지만,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인간 진화론의 증거와 맞지 않는 화석들과 유전체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Science 지에 게재된 리뷰 글에서, 그 증거들은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으며,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새로운 모델은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일찍, 30만 년 전쯤에 진화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호주와 동아시아까지도 퍼져나갔고, 도중에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그리고 아시아의 데니소바인과 교배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제안되었는데, 대부분 분자생물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흩어진 현생인류에 의해서, 고대 인류 개체군들이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대부분 고인류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개선된 ‘연속적 교배’ 모델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견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굴된 호모 날레디의 부분적인 뼈들이 포함되는데, 유명한 루시의 뼈들만큼이나 완전한 골격이라고 말해지지만, 단지 약 20%의 뼈들만이 발견된 것이다. 인간 진화에 대한 추론은 얼마 안 되는 화석 뼈조각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추측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과 영장류의 화석 뼈 조각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됨에 따라, 한때 보편적으로 믿어왔던, 인간의 진화적 발전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현대인의 조상으로 추정됐던 몇몇 인간 화석들은 그들의 조상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종교배를 하

고 있었다. 발견된 화석 유형들 모두에서, 많은 육체적, 문화적 다양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이제 현생인류의 다른 종족 또는 인종 집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발견은 “현생인류의 형태학적 특성이 매우 일찍부터, 화석기록에서 홍적세 중기 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완전히 현대적 인간 형태”를 지닌 화석들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적 역사의 매우 초기로 믿고 있던 시기에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DNA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진화적 발전 대신에, 개와 고양이에 많은 품종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과 대형 영장류에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론은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여러 새로운 발견들과 사실에 꺾어맞추기 위해서, 언제나 성공적이지 않았던 추정들을 만들어냈다. 주요한 문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현생인류는 주장되는 인간 진화론의 연결고리로 주장됐던 종들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다. 증거들은 해부학자인 데이비드 멘톤 박사가 문서화해 놓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간과 영장류의 주장됐던 모든 연결고리 종들은 완전한 인간이거나, 완전한 원숭이였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기간 존재해왔다. 한 선도적 교과서는 4개의 매우 다른 인간 진화계통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중 어느 것도 발전 모델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주장됐던 진화적 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분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약

고인류학의 이러한 최근의 ‘혁명’은 이 분야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호한 뼈조각 몇 개를 근거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다. 그 뼈들의 연대 측정은 어렵고, 심지어 뼈의 주인을 결정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뼈조각들은 종종 같은 개체의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 진화론은 화석 증거에 구속받지 않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뼈로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뼈는 몸체 무게의 단지 15%에 불과하다.

평생 진화론자였던 윌슨은 다윈에 대한 한 연구에서, 이론의 핵심 개념조차도 많은 선도적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분야의 역사는 갈등과 주요한 불일치가 처음부터 현장에서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놓고 있다. 인간 진화론은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소망적 추정적 사고였다. 상징물이 된 “인류의 행진”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바의 다·이제스트

이란, 하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

지난달 16일, 이란에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하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졌다. '하잡'으로 촉발된 시위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이란 휴먼 라이츠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13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모든 여성에게 하잡 착용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진한 화장이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하잡 착용은 관행일 뿐 의무가 아니지만, 이란은 다르다. 지난해 8월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이 집권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하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10일에서 2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하고 벌금을 물리고 체찍으로 때릴 수 있게 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분노한 일부 여성들은 강력한 법 집행에 반발해 시위 발발 전부터 국외로 떠났다.

쿠바, 동성혼 합법화... '가족법'으로 채택

쿠바 전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권리 등을 규정한 새로운 가족법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유권자 74.1%가 투표해 찬성 66.9%, 반대 33.1%의 결과가 나와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공산당이 추진한 의제여서 가결되지 않았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가결하고, 투표자 3분의 1이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쿠바는 과거에 비추면 동성혼 합법화는 엄청난 변화이다. 피델 카스트로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기도 했다. 쿠바의 변화 배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공산당이 진보적 색채를 과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물려난 전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의 딸 마리엘 카스트로 국가성교육센터장이 폭심 있게 밀어붙인 것도 한몫했다. 주변 국가인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 등이 잇따라 동성혼을 합법화한 영향도 있다. 공산혁명 이후에도 자유로운 영혼을 중시하는 전통이 유지돼온 것도 작용했다. 그 결과 쿠바는 전 세계에 몇 안 남은 공산권 및 일당독재 국가를 통틀어 동성혼을 합법화한 매우 드문 경우가 됐다.

브라질, 트랜스젠더 하원의원 탄생...선거 역사상 최초

브라질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연방의원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연방하원에 트랜스젠더 후보가 입성하기는 브라질 선거역사상 처음이다. 당선된 트랜스젠더 후보 세 명은 모두 20~40대 청년 정치인이다. 에리카 힐튼(26세), 호베이온세(33세, 이상 사회주의자유당) 후보와 두다 살라베르트(41세, 노동자민주당) 후보가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브라질에서 제도권 정치에 문을 두드리는 트랜스젠더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의원, 지방의원 등으로 출마한 트랜스젠더 후보는 모두 76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트랜스젠더 피살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브라질 트랜스젠더 협회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피살사건 10건 중 4건이 브라질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브라질에선 트랜스젠더 피살사건 140건, 살인미수 79건이 발생했다.

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경보발령

금융감독원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 후 다른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

족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자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주의·경고했다.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된다.

카톡만큼 많이 쓰는 대박 터진 '한국 앱'

인공지능(AI)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수학 교육 앱 '칸다'의 가입자 수가 7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앱이 한국 인구수를 추월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칸다는 수학 문제 풀이 앱으로 사용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수학 문제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풀어준다. 5초 이내에 문제 풀이와 관련 유형, 개념 영상 등 맞춤형 콘텐츠가 나온다. 칸다가 글로벌화에 빨랐던 이유는 수학이 다른 과목과 달리 글로벌 언어 장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출시 2년 만인 2018년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50여 개국에 관련 서비스를 내놨다. 칸다의 해외 가입자 비중은 87%에 육박한다. 특히 칸다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민 교육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도움이나 지도를 받기 어려운 학생이 많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N잡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1인 가구 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N잡러의 배경으로는 여유·비상자금 마련(31.5%), 시간적 여유(19.4%), 생활비 부족(14.1%) 등으로 꼽혔다.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2%였다. 2년 전 같은 조사 당시(57.6%)보

다 13.4% 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대로 저축 비율(44.1%)은 9.8% 포인트 높아졌다. 1인 가구가 대체로 '올로'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비에 치중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들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 자금 규모는 평균 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우울증·불안장애 치료받은 직장인 70만 명

코로나19 이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약 173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약 151만 명) 대비 14.2% 늘었다. 연령대별로 20대 환자수는 2019년 약 20만 명에서 2021년 약 28만 명으로 42.3% 늘었다. 10대 이하(33.5%), 30대(24.9%), 10대(22.1%)의 순이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약

6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격별로 보면 같은 기간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수는 55만 6251명(2019년)에서 70만 3890명(2021년)으로 26.5%가 늘었다. 이를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병원을 찾은 공무원은 5만 1513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3만 9551명)과 비교하면 30.2% 늘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한국 줄기세포 기술 어디까지 왔나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난치병이나 노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에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줄기세포 기술로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줄기세포의 발달역사

당뇨병, 신경계 장애, 암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질환은 현대인에게 이미 낮은 질병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 의학은 이러한 질병들과 싸우는 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약 220만 명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 암의 경우 2018년 전 세계적으로 960만 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1,790만 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전 세계 사망률의 31%에 해당한다.

줄기세포는 자가복제가 가능하며, 자가복제는 미분화 상태의 줄기세포가 스스로 자신과 같은 여러 자가복제 세포로 분열을 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정의된다. 미분화된 단어는 어떤 세포로 갈지가 결정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상태를 말한다. 줄기세포는 자가복제를 위해 한번 또는 두 번 딸세포를 생산한다. 이러한 자가 복제능력으로 인해 줄기세포는 재생 의학에서 필수적 분야로 여겨진다. 모든 사람에서 발견되는 줄기세포는 다양한 성체세포로 분화한다.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생물학을 연구하고 다양한 질병의 예방적 치료법을 찾아온 지도 50여 년이 넘었다. 가장 새로운 접근방식은 줄기세포는 손상되거나 노화 또는 비정상적 세포와 조직을 재생 또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줄기세포로 가능한 활용분야로는 심혈관계 장애들, 장기 재생, 암, 당뇨병 그리고 신경계 장애들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 의학에서 줄기세포의 여정표

•1981년 배아줄기세포의 확인 •1983년 화상 피해자에 이식할 피부의 재생 •1997년 최초로 복제 양

‘돌리’ 탄생 •1998년 인간 배반포로부터 배아줄기세포의 분리 •2006년 성체 세포의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만능세포의 생산 •2007년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 •2009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시험 •2013년 치료목적의 복제를 통한 인간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생산 •2014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한 노인성 시각손상 치료를 위한 최초의 임상시험 개시

한국 줄기세포 기술 어디까지 왔나?

■만성통증 치료의 길 열어

바이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의 자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통증 치료법이 일본 후생성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 세계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로 배양된 자신의 줄기세포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노령층의 삶의 만족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만성통증은 여러 원인에 의한 만성염증으로 발생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국내의 경우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0% 정도가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환자가 만성통증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타그룹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서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1회 1~3억셀 정맥 주사로 투여받으면 된다. 치료에 필요한 자가 지방줄기세포 제조(배양) 및 공급은 네이처셀 관계사인 일본의 JASC가 담당하며, 배양을 위한 배지는 네이처셀이 공급하게 된다.

줄기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술 차이

	줄기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술
정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	환자의 조직을 떼어 줄기세포만 분리, 병원의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
관련법	약사법	의료법
개발과정	동물실험→임상시험1상→임상시험2상→임상시험3상	의사의 책임 하에 임상시험으로 시행한 치료술
승인과정	임상3상 시험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약으로 승인	해당 시술 결과가 보고된 다수의 의학문헌 고찰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효과)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의료기술로 인정
검토·승인가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치료비	개발 과정 중에는 치료비 청구 불가.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만 환자가 치료비용 부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는 치료비 청구 불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후에만 환자가 치료비용 부담 (단,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수술일 경우에는 예외)

■항암효과 두 배 높이는 전달체 개발

교모세포종 항암제가 암 줄기세포에 직접 전달되도록 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운반체를 연세대의대 연구팀이 개발했다. 교모세포종 치료에 이 운반체를 이용하면 항암제 치료 효과를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교모세포종은 뇌 신경세포에 생기는 암으로,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할 만큼 진행이 빨라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교모세포종은 종양 등급 중 가장 치료가 어려운 4등급에 포함돼 있다.

전이가 빨라 수술 후 항암 치료 효과가 다른 암종에 비해 떨어졌던 교모세포종에서 환자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바이오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현대인의 병 ‘불면증’... 꿀잠 자고 싶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밤새 잠을 뒤척이게 된다. 수면장애는 전 국민의 20% 이상이 경험했을 정도로 쉽게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약을 먹기도 한다.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든 음식들이 수면유도제 역할을 해준다.

■수면제와 수면유도제, 안전하게 먹는 방법

수면을 돕는 약으로는 수면제와 수면유도제가 있다. 자칫 혼동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약물이다. 수면제는 주로 항불안제 계열의 의약품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대표적인 수면제 성분이다. 뇌에 직접 작용해 강력한 진정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수면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졸음을 유발하

	수면제	수면유도제	수면보조제
성분	벤조디아제핀 (잠을 자도 알은 2단계 수면만 유도)	비벤조디아제핀 (졸비템)	항히스타민 성분 감기약 계열 (건강기능식품)
항정신성약품	○	○	×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품	○	○	×
주요부작용	- 기억력, 치매 등 뇌기능 저하 문제 - 약물의존성	- 이상행동 - 혼란 장애	불면증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할 수 있음
복용기간	3주 이하	3주 이하	원인치료와 함께 복용
적용대상	불면증	단기불면증	단기불면증

는 약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부작용을 보완해서 수면 유도 기능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비벤조디아제핀 수면유도제도 있다. 대표적인 비 벤조

디아제핀 수면유도제가 ‘졸피템’이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

멜라토닌은 질 높은 수면을 유도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돕는 호르몬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송파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성장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것은 바나나와 우유, 체리 등이다. 호두와 아몬드 등 견과류도 수면에 도움을 준다. 특히 호두는 체리만큼 멜라토닌이 풍부하다.

성경의 창조론과 유신진화론, 양립할 수 있는가?

‘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를 6일 만에 다 창조했다고? 이게 어처구니없는 신화가 아니고 뭔가?’ 진화론을 과학의 정설인 양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에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자체가 전도의 큰 걸림돌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대체로 창조주가 있느냐보다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더 민감하다. 그러나 6일 만에 창조되었든 더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든, 중요한 건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다. 지성적인 인격체를 창조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체도 능력도 없는 우연을 창조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자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절충한 ‘타협이론’이 등장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분위기다. 진화론의 주요 뼈대에 성경의 하나님을 창조와 진화의 주체로 편입시켜 넣은 대표적인 타협이론이 바로 ‘유신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 등이다. 이런 타협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독교의 창조론이 진화론 중심의 현대 과학과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진화론에 익숙한 수많은 지성인을 기독교 신앙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본다.

<타협의 거센 바람>(저자 이재만)은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창조론에 진화론을 혼합하려는 유신진화론과 같은 타협이론의 부당성을 창조 과학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제시한다.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VS ‘존재하기에 생각한다’

중세 말 교회의 타락으로 교회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 교회 밖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근대 이성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저자는 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말이 근대 철학의 근본 원리가 되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이성에 두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저자는, 성경은 이와 반대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난 후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사고는 18세기부터 자연과학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과거를 알고자 하는 ‘역사 과학’의 영역으로까지 번져나갔으며, 역사 과학의 흐름은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통해 동일과정설을 주장하게 되는 결실을 본다. 동일과정설은, 지구 위의 변화는 항상 같은 속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라는 명제를 보편화시켰다. 자연스럽게 이 가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창조나

노아의 대홍수 같은 지구적인 대격변 사건의 발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부추겼다. 마침내 다윈은 지층과 산들이 아주 느리게 형성되었다는 라이엘의 동일과정설을 받아들여 지구가 매우 오래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생물의 변화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체계화시켜 진화론의 원전인 <종의 기원>을 펴낸다.

다윈의 진화론은 등장하자마자 과학적 검증을 거칠 새도 없이 전 유럽을 휩쓸며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흐름은 1872년 지질 연대표를 완성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지질 연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화론의 순서대로 화석이 고스란히 발견된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6일이나, 46억 년이나?

현재 창조론에 진화론을 뒤섞어 제시하는 복음주의 권 내의 타협이론은 유신진화론과 간격 이론, 점진적 창조론 그리고 다중격변설이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질 연대표의 순서대로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주장이다.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흘렀다는 주장이고,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셨다는 주장이다.

이들 가운데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주되게 비판한 타협이론은 유신진화론이다. 특히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는 우종학 교수의 책,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에 소개된 유신진화론의 내용들을 비판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신이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변이 등과 같이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원죄가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전승되는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는 없다.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타협이론의 영향으로 이미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아담의 역사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충분히 진화된 원숭이 같은 동물 집단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혀 주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의 대비가 무너지면서 구원의 복음에도 큰 변질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창세기 1장이 육하원칙에 따라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에는 문자 그대로 볼 때 육하원칙에 입각한 창조의 과정이 빠짐없이 드러나 있다고 저자는 반박한다. 결국, 하나님이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이다.

진화 이론과 무신론적 진화주의는 참된 과학인가?

현재 창조 과학계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후 모세 시대의 분명한 역사적 맥락에서도 친히 옛세 동안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언명하신 데서 창조 시의 하루를 문자적으로 24시간으로 여기는 젊은 지구론을 견지한다. 안식일이 하루라면, 옛세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동일한 사이클의 동일한 하루다. 그 하루하루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했다. 수십억 년의 긴 시간 동안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과 죽음이 반복 진행되어야 하는 진화의 과정을 창조에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 우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멋있게 변해 왔다”고 말하지만, “우주 역사는 인간에 의해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로 저자는 반박한다. 진화론 자체가 실험 과학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데이터와 모델에 따른 가상의 역사를 전제하는 역사 과학이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창조론에 진화론을 수용하려는 타협이론은 성경과 일치하지도 않고, 엄밀하게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초월적이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진화론과 기독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저자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진화론 자체가 진화론자들 스스로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고, 전이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닌다고 시인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무한하고도 완전한 지성을 가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차피 6일 창조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부활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다 못 믿을 이야기다. ‘논리(logic)의 어원이기도 한 로고스(logos)에 의한 질서 있는 창조가 왜 우연에 의한 진화론보다 모든 면에서 이치에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변증해 나가는 것이 창조론을 진화론에 적당히 뒤섞어 놓으려는 혼합주의적 접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도 이성적인 복음 제시가 될 것이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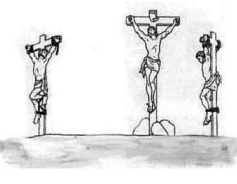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		3			4		8	
								8	9
	2	2			5				
				6			7		
10									
				4		15			17
9	11		13					16	
			13	14		15	18		
12				14					
		11					17		

가로문제

-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 주로 머리와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곳
-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속대강이와 같이 마구 흐트러진 머리털
-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실제로 만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치로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
-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함
- 젖을 떼는 시기의 아기에게 먹이는 젖 이외의 음식

- 합창을 주로 하는 음악 단체
-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부분
- 벼나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낱알을 떨어냄
- 강한 진정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습관성이 있어 오래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 물질
-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 남의 이름을 빌려서 씀
- 원자핵의 붕괴나 핵반응으로 방출되어 동력 자원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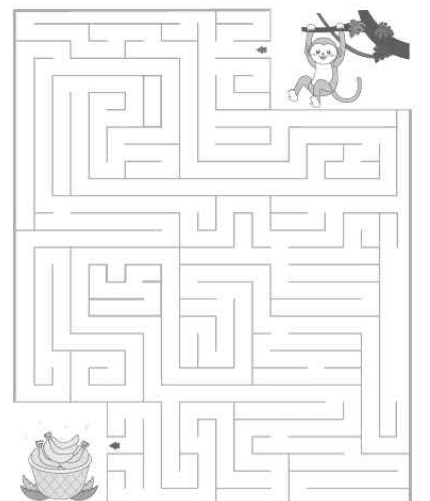
- 어떤 일을 거들어 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
-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사를 지내는 의식
- 다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임무로 하는 사람
-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데 쓰는 물건
- 생물이 불고 늘어서 많이 퍼짐
-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써서 봉하여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등의 돈
- 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 승부를 겨루는 일에서, 겨룰 차례를 정해 놓은 표
- 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일 년에 두 번 재배하는 방법
-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
-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함
-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
- 코끼리나 원숭이 따위의 동물을 다스리고, 접시 돌리거나 줄타기, 요술 등을 부려 흥행하는 단체
- 여러 사람이 뒤엉켜 함부로 떠들거나 덤벼 뒤죽박죽된 곳

- 차를 타는 데에 드는 비용
-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

<지난 10월호 정답입니다>

낙	엽		대	변	인		상		
하			립		권	선	징	악	
산	산	조	각					담	보
			물		성	적	표		조
손		주	인	공		지		안	개
수			기		응	석		전	
건	곤	일	척		고		봉	사	
			기			세		고	민
선	봉	장			숙	련	공		동
배			정	찰	계		부	동	산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전도축제 발대식 ■ 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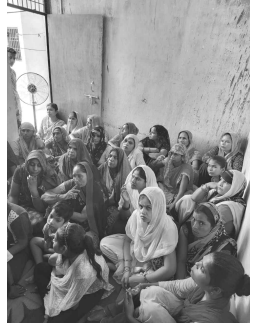
온가족 천국백성 만들기
10.23 (주일) 오전11:00 교회학교 이벤트 데이

11.13 (주일) 1부: 오전9:00 / 2부: 오전11:30



구원을 위한 위대한 클릭! 들어오라! 예수님 품으로!

담임목사 인도 선교



◀ 성찬 포도주
담그기
공동체 심방 ▶



삼산1목장-임태희형제 사업장



비전목장-권순용/이세라 가정



◀ 실버스쿨
문화아카데미 ▶



미술치료-심리상담

공동체 모임



비전목장



부개목장



경인목장-윤남순권사님 팔순잔치

“하나님께 맡기려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내 생애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과연 있는 걸까... 결혼이 늦어지며 생긴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주셨습니다. 한나와 같은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은 부르심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부르심에기에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 불러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데이트라는 어플을 통해 기적같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뢰하는 성품 좋은 남편과 결혼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허니몬 베이비가 생겨 지금의 보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하나님의 속도에 휘말려있던 2020년 한해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보라를 바라보며 보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보라를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보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믿는 자로서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존감 안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보라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장난끼 많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보라, 조심성이 있어 처음 보는 것은 관찰해야 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다가가는 보라. 무쌍의 큰 눈이 매력적인 보라. 찬양과 율동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보라. 베풀고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보라. 사물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 보라... 보라를 알아가고 양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기도하는 부모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라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보라’ 이름의 뜻인 [요일 3:1] 말씀과 같이, 보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라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보라를 양육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목장 손주희자매

2 020년 3월 마지막 날 온유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던 날. 정말 부모가 되었고 그 첫 만남의 순간에 뜨거운 기도로 축복해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온유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온유함을 닮길 소망해 지은 이름으로 그 소망대로 너무나도 밝고 온유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울릴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사랑스럽게 자라주고 있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했지만 너무도 연약한 부모라 화도 내고 혼내기도 하며 또 자책하고 후회하며 양육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치레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했는데 부모 마음에 욕심이 생겨 더 잘하길 더



바르길 바랐던 거 같은 마음에 혼내기도 했던 나를 돌아보며 또 기도로 고백하고 울고 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또 한층 부모로 성장시켜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를 예배 속에서 키우며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했고 이번에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아기 율이를 선물로 허락하셔서 출산하고 회복 중에 또 한번 부모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부모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도와 예배로 잘 키우는 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목장 안예슬자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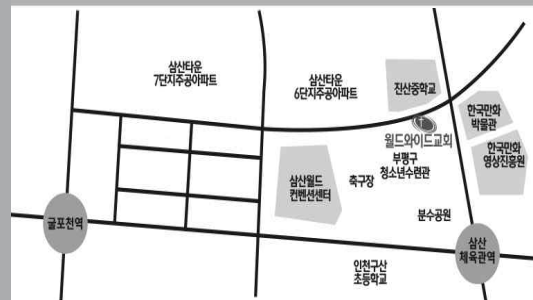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분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분당
주일	1부(축재예배)	오전 8:45	지하1층 분당
	2부(축재예배)	오전 11:15	지하1층 분당
	3부(청년예배)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4부(테마예배)	오후 5: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 지역	미안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블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501-9686~7
•Fax: 032)503-9686
•http://www.wwch.or.kr

2022 가을 블레싱 전도축제

온가족 천국백성

만들기

Enter



CHRIST DIED FOR OUR SINS

구원을 위한 위대한 클릭!

10. 23 (주일) 오전11:00 교회학교 이벤트 데이

11.13 (주일) 1부 : 오전9:00 / 2부: 오전11:30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드와이드교회